

2017년 4월

화학경제연구원  
컨설팅팀

발간일: 2017년4월  
분량: 176페이지  
가격: 88만원

연구원  
(02)6124-6660  
consulting@chemlocus.com

## 건축자재, 규제강화 대응으로 경쟁우위 확보 전략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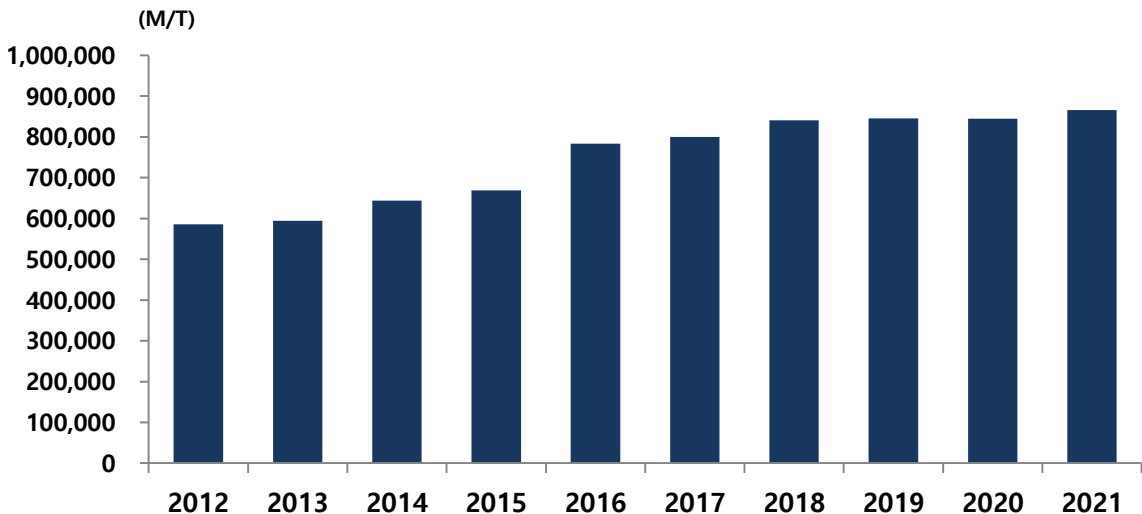
**건축자재** 시장은 전방산업인 건축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4년 건축산업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건자재 수요 역시 증가했다. 단열재는 종류가 다양하고 종류별 특성이 달라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며, 최근 정부의 법규강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단열재 선택 기준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 국내 단열재 시장 수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1%증가 전망

국내 건축용 단열재 수요는 2016년 71만9820톤으로 전년대비 8% 증가했다. 수요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전방산업인 건축경기의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국내 건설경기는 2013년을 기점으로 건축 착공 및 허가 면적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년 전년대비 36%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단열재 및 인테리어 제품은 착공 이후 실제 사용될 때까지 1~2년간의 시차가 있어, 최소 2018년까지 건자재 시장은 호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의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979년 이후 건축물 단열재 허용두께는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2016년 7월 시행된 단열재 허용두께는 2013년 9월 시행규칙 대비 29%(가등급 기준)나 증가했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로 외벽 단열재 두께의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단열재 수요량이 증가한 것이다. 단열재 시장의 성장은 건축경기 회복으로 면적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로 단열재 두께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1. 국내 단열재 수요 전망(2012-2021)



## 단열재 시장, 아직은 가격경쟁력 높은 EPS가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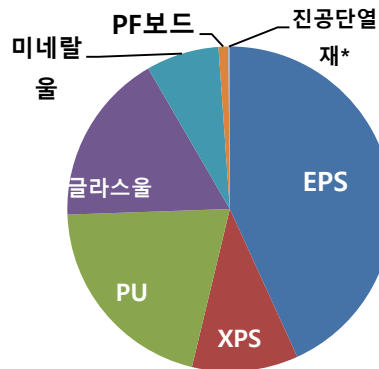
단열재는 크게 유기질 단열재와 무기질 단열재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유기질 단열재로 EPS, XPS, PU, PF보드 등이 있으며 무기질 단열재로는 글라스울, 미네랄울이 주로 사용된다. 진공단열재는 심재에 따라 유기 단열재 혹은 무기 단열재로 구분된다.

2016년 기준 EPS, 글라스울, PU, XPS 등 4대 단열재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EPS가 여전히 단열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 EPS시장은 원료 생산 업체는 6개인 반면, 단열재 성형기업은 100여 개 이상의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구조로 지역별 수요를 각 지역의 업체들이 대응하고 있다. EPS 내에서는 비드법2종(흑색EPS)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29.2%의 성장률로 성장했으며, 2021년에는 EPS 판매비중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로 인한 단열재 후막화, 난연 규제 영향 등으로 EPS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

표2. 단열재 소재별 점유율(2016)



## 외부마감재에 불연재, 최소 준불연재 사용 의무화

2016년 기준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구조(발코니, 옥상, 지붕, 외벽 등)화재 1480건 중 외벽화재는 387건으로 26%를 차지했다. 최근 잦은 화재 발생으로 인해 정부는 건축물의 화재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6년 4월 시행된 건축법 규칙에 따르면 2,000㎡ 이상 상업지역 건축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 건축물 외벽에 불연 및 준불연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강화는 외단열재 시장 뿐만 아니라 단열재 시장 전체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화재를 방지하거나 화재시 대피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건물이나 외벽에 PU, PF보드, 글라스울 등 준불연재 단열재를 사용하고 비상구나 계단에는 미네랄울과 같은 불연재 단열재 사용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준불연재 요구하는 샌드위치 패널코어 시장, EPS ↓, PU·글라스울 ↑**

샌드위치 패널코어용 시장에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샌드위치 패널 화재 사건 발생 후, 화재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준불연재 패널코어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샌드위치 패널코어에 적용되는 소재는 EPS, PU, 글라스울이 대표적이다. 2016년 기준 EPS가 전체 점유율의 30%를 차지했으나 글라스울, PU 등 준불연재 소재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에는 EPS는 점유율 하락이 글라스울과 PU는 점유율 상승이 전망된다.

표3. 샌드위치 패널코어 점유율(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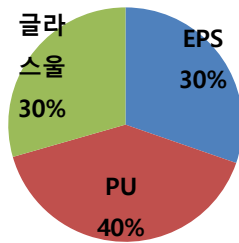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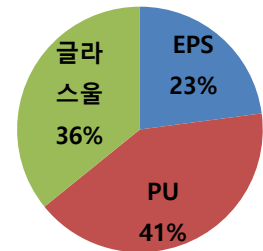


표4. 샌드위치 패널코어 점유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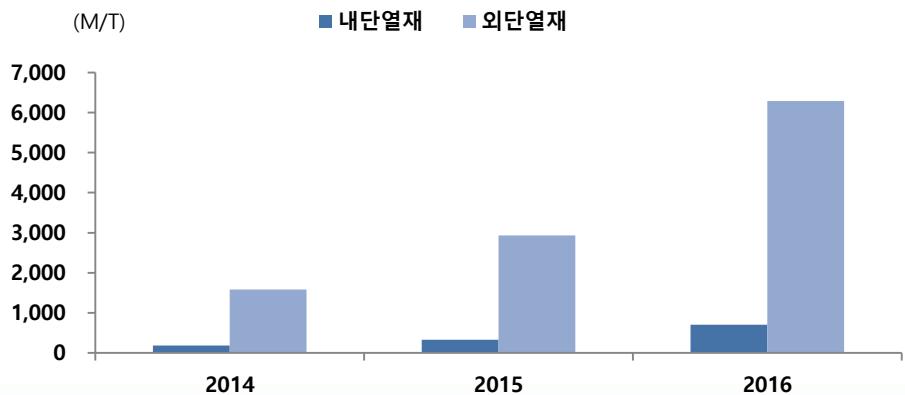


**내화 규제 강화된 단열재 시장에서 PF보드가 우위!!**

건축물의 화재법규 강화로 준불연재 및 불연재 단열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PF보드는 법규개정 이후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단열재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PF보드는 열전도율이 낮은 준불연 단열재로 정부가 요구하는 법규에 가장 부합하는 단열재로 인식되고 있다. 2014년부터 국내에서 PF보드가 본격적으로 공급됐으며 LG하우시스와 덕유패널만이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500억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LG하우시스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PF보드는 기타 단열재와 다르게 건축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표5. PF보드 용도별 수요 동향(2014-2016)



**PVC 마감재 소재, 인테리어 트렌드에 수요 좌우  
-바닥재, 벽지, 데코시트 기준-**

PVC마감재는 제조과정 중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첨가되기 때문에 건자재 시장에서 인식이 나쁘다. 이에 PVC바닥재는 2016년 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2021년 70%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PVC 데코시트는 가구용 채용 감소 및 PET, PP 데코시트로 대체되고 있어 시장 규모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업체들은 친환경 가소제를 사용한 바닥재 제품을 출시했지만, 오히려 바닥재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원료보다 인테리어를 고려해 소재를 선택하고 있다. 강마루는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외관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선호돼 2012년부터 5년간 연평균 36.2%의 성장률을 보였다. PVC를 원료로 하는 실크벽지는 합지벽지에 비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어 환경문제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물량기준 시장점유율은 약 50%를 유지하고 있다. PVC소재를 사용한 마감재시장은 인테리어 트렌드에 수요 변화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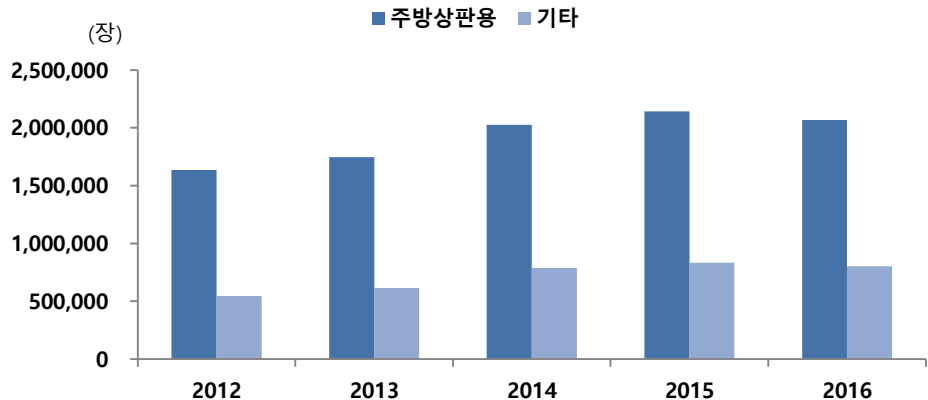
**수출로 판로 개척중인 인조대리석!**

인조대리석의 주용도는 주방상판으로 전체 수요의 72%를 차지한다. 주방상판 외에도 인조대리석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인조대리석은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인테리어 마감재로 인식돼 주택의 내벽마감재 뿐만 아니라 테이블, 컵 받침, 식탁상판 등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으로 그 용도가 확대되었다.

인조대리석의 해외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크릴계 인조대리석의 수요 비중이 높지만, 해외에서는 천연소재와 외관이 유사한 엔지니어드 스톤이 선호되고 있다.

한화L&C, LG하우시스는 북미지역 공장에 엔지니어드 스톤 생산라인을 증설해 해당지역을 공략할 계획이다.

**표6. 인조대리석 용도별 수요동향(2012-2016)**



건자재 시장분석 및 전망(2017) 보고서에서는 단열재 및 인테리어 마감재의 시장규모와 용도별(건축용, 산업용)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5년간 국내 수요 및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유기단열재, 무기단열재, 인테리어마감재 등의 시장분석 및 전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상세내용은 CMRI 시장분석 보고서 - 건자재 시장분석 및 전망(2017) 보고서 참조